e-ISSN 2713-6353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2.13.05.455

# COVID 19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자기효능감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이윤희<sup>1</sup>, 박금옥<sup>2\*</sup> <sup>1</sup>우송정보대학 간호학과 교수, <sup>2</sup>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The Effect of Learning-flow and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non-face-to-face learning in the COVID-19 situation on self-leadership

Yoon-Hee Lee<sup>1</sup>, Keum-Ok Park<sup>2\*</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Woosong College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The College of Health and Welfare, Wooso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자기효능감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간호대학생 237명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 19부터 12월 31일 까지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자료분석은 t-test, ANOVA,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학습몰입,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은 학습몰입(r=.512,  $\rho$ <.001)과 자기효능감 (r=.664,  $\rho$ <.001)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회귀분석 결과, 24세 이상( $\beta$ =0.16,  $\rho$ =.001), 학습몰입 ( $\beta$ =0.19,  $\rho$ <<.001), 자기효능감( $\beta$ =0.39,  $\rho$ =<.001)이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9.8% 이었다( $\Gamma$ =40.01,  $\rho$ <.001). 본 연구결과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간호대학생, 학습몰입,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비대면학습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confirm the effect of learning flow and self-efficacy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non-face-to-face learning in the context of COVID-19.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19 to December 31, 2021 for 237 nursing students, and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for data analysi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ubject's learning flow,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Self-leadership wa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learning flow(r=.512,  $\rho$ <.001) and self-efficacy(r=.664,  $\rho$ <.001). On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significant variables were 24 years of age or older( $\beta$ =0.16,  $\rho$ =.001), learning flow( $\beta$ =0.19,  $\rho$ =<.001), and self-efficacy( $\beta$ =0.39,  $\rho$ =<.001). and explanatory power was 49.8%(F=40.01,  $\rho$ <.001). According to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various programs that can enhance learning flow and self-efficacy in order to improve self-leadership.

Key Words: Nursing Student, Learning Flow, Self Efficacy, Self Leadership, Non-face-to-face Learning

\*Corresponding Author: Keum-Ok Park(keumok@wsu.ac.kr)

Received March 31, 2022 Accepted May 20, 2022

# 1. 서론

2019년 12월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2020년 1월 국내에 COVID-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020학년도 1학 기부터 교육 분야에 있어서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함과 동시에 비 대면 교육이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진행되었다[1]. 대학 들은 학생들의 교육과 기술 훈련 및 학습탐구를 위해 기존의 대면 수업 방식에서 비대면 수업체제로 변환하 였으며[2], 실습수업이 필수로 수반되는 의학과, 간호학 과 및 보건 계열학과 등에서도 대면과 비대면 방식이 혼용되었다.

간호대학생은 미래 간호사로 의료 현장이라는 복잡 하고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대학 생활 동안 다양한 경험과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 간호 상황에 적용하는 실용학문으로서의 간호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론수업 뿐만아니라 교내 실습, 임상실습이 함께 이루어지며 학습자들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3].

비대면 수업의 특징에 있어 접근성과 편리성, 유연성에 있어 장점이 있지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 적어 학습자의 의지에 따라 학습효과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 학습자의 역할 및 능력이 중요한 학습효과의 요소가 된다[4,5]. 즉, 비대면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자신이 수행한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COVID-19로 인해 지식과 정보에 대한 습득과 효율적인 활용, 학습에 대한 태도 등 학습자의 역할이 커지게 되면서,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6]. 학습몰입은 문제해결이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집중하여 과제해결을 위해 정신활동과 주의집중을 하나로 모으는 총제적인 결과로 간호교육 의 주된 핵심이 되고 있으며[7], 학습몰입 경향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전공교과목에 대한 만족과 학과 적응도, 학업에 대한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8]. 또 다른 연구 에서도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학습몰입 성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9].

또한 능동적인 학습 참여와 지속적인 학업 성취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학업 성취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1]. 성공적 과제수행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 을 수행해 낼 수 있는 기대감을 자기효능감이라 하며, 역경을 극복해나가는 발판이 된다[12-14].

셀프리더십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자기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교육과 학습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개념이며, 자기 스스로의 효율 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행동을 통제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이다[15.16]. 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스스로에게 주도성 및 열정이 수반된 개별 성장의 영향요인으로서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7,18] 이러한 셀프리더십은 비대면 학습 상황에서 주체적인 지식 습득의 측면에서 간호대학생에게 중요 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에 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10,19-21]. 선행연구들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셀프 리더십과 관련된 변수들을 직,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대면과 비대면 혼용 수업에서 셀프리더십에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VID- 19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관계를 파악하고 학습몰입,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이 능동적 학습활동의 주체로 나아가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자기효능감이 셀프리더십 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COVID-19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였다.

표본 선정은 G\*Power 3.1.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소 표본 수 선정을 위해 독립변수 10개,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 .15, 검정력 .95을 기준으로 다중회귀분석 시, 최소 172명이 산출되었다. 설문지 회수율을 고려하 여 239명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설문지가 배부 된 총 239명의 학생 중 불충분하게 응답한 2명의 설문 지를 제외하고 총 237명(회수율 : 99.0%)의 설문결과 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2.3 연구 도구

# 2.3.1 학습몰입

학습몰입은 문제해결이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집중하여 과제해결을 위해 정신활동과 주의집중을 하나로 모으는 총제적인 결과이다[7]. Martin과 Jackson 의 학습몰입 측정 도구[22]를 Jeong과 Jeong이 번안하여 재구성한 도구[23]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하고,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Likert 5점 척도로 학습 몰입도가 클수록 점수가 높게 나온다. 개발 당시의 Cronbach'α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α 는 .83 이었다.

#### 2.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어떤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판단이며 얻고자 하는 행동을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나 기대감을 의미한다 [12]. 본 연구에서는 Sherer등이 개발하고[24] 홍혜영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25]를 사용하였다. 행동을 시작 하려는 의지,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지, 최악의 상황에서 그 행동의 지속능력과 관계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개발당시 Cronbach'α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는 Cronbach'α는 .94이었다.

# 2.3.3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의도 및 자신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영향력 으로 말한다[15]. 본 연구에서는 Houghton과 Neck이 개발한 RSLQ(Revised Self Readership Questionnaire) [26]를 신용국, 김명소, 한영석이 한국어로 번안한 셀프 리더십 척도[27]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행동중심적 전략, 자연 보상전략, 건설적 사고전략의 3개 변인, 35개 문항으로 되어있으며 Likert 5점 척도(1: 매우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개발 당시 Cronbach'α는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α 는 .91이었다.

모든 도구는 저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 2.4 대면과 비대면 혼용 수업의 운영

교육부와 각 학교의 지침에 따라 100% 대면강의를 시행한 경우를 제외한 대면수업과 ZOOM, LMS등의 비대면 강의를 혼용하여 시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 2.5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W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IRB No. 1041549-211012-SB-128)을 받은 후 진행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11월 19부터 12월 31일까지이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행하였으며 설문 링크에 접속시 설문 전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은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고, 설문 작성 중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중도 탈락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기재하였다. 설문 작성 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내외였다.

####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학습몰입,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의 정도는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다.
-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독립표본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다.
- 셋째, 학습몰입,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 간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다.
- 넷째, 학습몰입, 자기효능감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학습몰입,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학습몰입의 평균은 3.60±0.56점이었으며,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83±0.54점, 셀프리더십은 3.56±0.41점이었다.

Table 1. Degree of Learning-flow,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of the Participants (N=237)

Variable	Mean	SD	MIN - MAX
Learning-flow	3.60	0.56	2.20 - 5.00
Self-efficacy	3.83	0.54	2.41 - 5.00
Self-leadership	3.56	0.41	2.43 - 4.77

#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Table 2 와 같다. 여자가 187명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81명, 3학년이 76명, 2학년이 56명 순이었고, 평균 연령은 22.49 ±3.37세였다. 대학생활 만족은 144명이 만족이었고, 비대면 강의를 100%하는 경우는 44명, 70%이상하는 경우는 186명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연령 (F=4.95, t=.008), 대학생활 만족도(F=11.59, t<.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 학년, 온라인학습의 비율은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 Degree of self-leadership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N=237)

Characteristics		N or	Self-leadership			
		M±SD	M±SD	t/F (ρ)		
Sex	Male	50	3.66±0.43	1.80		
	Female	187	3.54±0.41	(.073)		
	1st	81	3.55±0.39			
Grade	2nd	56	3.63±0.49	0.73		
	3rd	76	3.53±0.38	(.516)		
	4th	24	3.61±0.48			
Age (year)						
	≤21	121	3.55±0.41a	4.95		
	22-23	63	3.48±0.36b	(.008) c⟩b		
	≥24	53	3.71±0.48c			
Major	Unsatisfied	8	3.52±0.35a	11.59		
satisfac tion	Moderate	85	3.40±0.33b	((.001)		
	Satisfied	144	3.67±0.44c	c>b		
Online lecture	≥70%	230	3.58±0.42			
	50%	5	3.58±0.50	0.28 (.840)		
	≤30%	2 3.31±0.16		( 10)		

# 3.3 학습몰입,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간의 상관관계

Table 3과 같이 셀프리더십은 학습몰입(r=.512,  $\rho$ <.001)과 자기효능감(r=.664,  $\rho$ <.001)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499,  $\rho$ <.001).

Table 3. Correlation of Learning-flow, Self- efficacy and Self-leadership (N=237)

Variable	Learning-flow r (\rho)	Self-efficacy r ( $\rho$ )	Self- leadership r (\(\rho\)	
Learning-flow	1			
Self-efficacy	.499 (<.001)	1		
Self-leadership	.512 (<.001)	.664 ((.001)	1	

# 3.4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이 셀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Table 4과 같이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위계적 회귀 분석 1단계 모델에서는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변수였던 일반적 특성 중 연령, 전공만족도를 투입하였으며, 2단계 모델에서는 학습몰입을, 3단계 모델에서는 자기효능감을 투입하였다. 연령은 21세 이하를 기준으로 22-23세, 24세 이상으로, 전공만족도는 불만족을 기준으로 보통과 만족 그룹으로 나누어 더미변수 처리를 하였다. 본회귀분석의 기본가정 충족 여부를 검정한 결과, 공차의한계는 .13~.89으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는 1.12~7.49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사이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931로 오차항의 자기상관은 없었다.

모델 1에서는 연령 중 24세 이상이( $\beta$ =0.18,  $\rho$ =.006)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62,  $\rho$ =<.001). 모델 2에서는 연령 중 24세 이상( $\beta$ =0.22,  $\rho$ =<.001), 학습몰입( $\beta$ =0.35,  $\rho$ <.001)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2.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3.54,  $\rho$ <.001). 모델 3에서는 연령 중 24세 이상( $\beta$ =0.16,  $\rho$ =.001), 학습몰입( $\beta$ =0.19,  $\rho$ =<.001), 자기효능감( $\beta$ =0.39,  $\rho$ =<.001)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9.8%로 이 회귀식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0.01,  $\rho$ <.00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Self-leadership

(N=237)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ρ	β	t	ρ	β	t	ρ
Contrast										
Age	22-23	09	-1.51	.133	02	36	.721	01	22	.826
(ref:≤21)	≥24	.18	2.78	.006	.22	3.87	⟨.001	.16	3.23	.001
Major satisfaction (ref:Bad)	Normal	.13	.88	.380	.03	.27	.791	05	49	.622
	Good	16	-1.08	.281	13	98	.328	09	81	.420
Learning-flow					.35	8.25	⟨.001	.19	4.69	⟨.001
Self-efficacy								.39	9.02	⟨.001
Adjusted R2		.128		.323		.498				
F (ρ)		9.62 (<.001)		23.54 (<.001)		40.01 (<.001)				

# 4. 논의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 셀프리더 십의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과 자기 효능감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60점 이었으며 비대면 수업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28]에서의 학습몰입 점수는 3.67점 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면 수업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평균 3.32점이었다 [29]. 현재 대학생들은 비대면 학습 시스템에 대해 친숙 하고 컴퓨터 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비대면 학습에 대한 거부감이 낮은 편이며 오히려 접근성, 편리성, 유연성의 이유로 학습몰입이 더욱 향상된 것으로 생각 해볼 수 있다. 향후 학습자가 비대면 강의에 더 몰입하여 참여할 수 있는 학생주도형의 강의, 어플리케이션, 컨텐츠 등의 개발이 요구된다.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83점이었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한 대면 수업시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3.20점이었다[30]. 비대면 학습의 경우 학생은 스스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주도적으로 학습의 양이나 내용을 결정, 판단하면서 자신감이 더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12], 간호대학 생은 향후 임상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지속적으로 요구 되므로 학생때부터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하여 효과적 으로 학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수자 또한 학생 개 개인의 성격과 실력이 다름을 인지하고 개인 맞춤형 지도 및 상담 등을 통한 상호작용과 자기효능감 증진 방안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셀프리더십 평균은 5점 만점에 3.56점이었다. 대면, 비대면 학습을 병행한 연구에서는 3.62점[31], 대면 학습에서는 3.49점[32], 3.53점[33]으로 대면, 비대면 학습을 병행하는 경우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에 일정하게 정해진 대면 강의 일정에 비해 대면, 비대면 강의 일정 에 맞추어 학생 스스로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구상하는 행동과 함께 자연스럽게 셀프리더십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셀프리더십은 간호사가 되어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도 필요한 역량이므로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연령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학년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과 셀프 리더십이 높았다[33]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전공만족도 또한 전공만족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31,33]. 특히 전공 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전공만족을 높이기 위해 학과 전공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고 전공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원주연[34]의 연구에서도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학습몰입, 자기효능감이었으며 설명력은 49.8% 이었다. 이는 24세

이상에서, 학습몰입 능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각각 나타내고 있는 연령이 증가 할수록[33,35], 학습몰입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향상된다는 결과[32]와 유사하였고 자기효능감이 증가 할수록 셀프리더십이 증가한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 [30,31]. 하지만 학년별로 보면 3학년이 가장 셀프리더십 이 낮게 나타나 이는 임상실습이 3학년에 시작되며 병원 환경에 적응해야하고 간호사 및 환자, 보호자와의 의사 소통의 어려움 또는 COVID-19로 인한 임상실습 대체 교내실습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것이 아닌가 사료 된다. 반면 2학년은 1년간의 비대면 학습을 경험하며 간호학 이론과 실습에 어느 정도 적응되어 셀프리더십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COVID-19라는 유례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학습 환경과 학습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면, 비대면 혼용 수업을 하는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자기효능감, 셀프 리더십에 대해 알아보았다는 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여겨 진다. COVID-19 이후 전통적 학습환경이 아닌 대면, 비대면 혼용 학습환경으로 교과목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이 셀프리더십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내 었다. 또한 대면, 비대면 혼용 수업시에 대면수업에 비해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점수가 향상 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COVID-19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다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더욱 향상시키는 효과 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비대면 학습의 구성과 방법에 대한 분석,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이론과 실습으로 나누어 비교 연구하여 COVID-19 이후의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자기주도학습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 REFERENCES

[1] Y. J. Sin. (2020). "Toward One Health & Welfare": Health and welfare in the Covid-19 Pandemic.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0(1), 5-10.

DOI: 10.15709/hswr.2020.40.1.5

- [2] H. Ahmed, M. Allaf & H. Elghazaly. (2020). COVID-19 and Medical Education. The Lancet Infectious Diseases, 20(7), 777-778. DOI: 10.1016/S1473-3099(20)30226-7
- [3] H. J. Jung & M. J. Chea. (2018).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Academic Stress on Adjustment college Life amo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8), 403-417.

DOI: 10.21742/AJMAHS.2018.08.15

- [4] G. D. Boca. (2021). Factors Influencing Students' Behavior and Attitude towards Online Education during COVID-19. Sustainability, 13(13), 7469. DOI: 10.3390/su13137469
- [5] T. Muthuprasad, S. Aiswarya, K. Aditya & G. K. Jha. (2021). Students' Perception and Preference for Online Education in India during COVID-19 Pandemic. Social Sciences & Humanities Open, *3(1).* 100-101.

DOI: 10.1016/j.ssaho.2020.100101

K. M. Choi. (2019). The Effect of Communication with Academic Advisor on Perceive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Educational College Student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 1099-1120.

DOI: 10.22251/jlcci.2019.19.2.1099

[7] S. J. Park. (2020). Influence of Teaching Presence and Self-determination on Nursing Student's Problem Solving Ability, Academic Efficacy, Critical Thinking Tendency, and Learning flow in Online Classroom Environmen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4), 171-198.

DOI: 10.22251/jlcci.2020.20.24.171

[8] N. S. Ha, S. Y. Park & M. J. Lee. (2015). literature Review(1996-2014) on Critical Thinking in Korean Nursing Education for the Era of Converg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9), 341-349.

DOI: 10.14400/JDC.2015.13.9.341

[9] S. H. Han. (2018). The Relationships am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Knowledge Achievement,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5), 661-671.

DOI: 10.21742/AJMAHS.2018.05.10

[10] J. H. Kwan. (2020) Intermediate Role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 319-338

DOI: 10.22251/jlcci.2020.20.17.319

[11] J. H. Lee. (2021).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Core Competency, and Self-Directed Learning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4), 33-43.

DOI: 10.22251/jlcci.2020.21.14.33

- [12] A. Bandura, W. H. Freeman & R. Lightsey. (1999).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W.H. Freeman and Company.
- [13] A. Bandur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14] D. H. Schunk. (2003). Self-efficacy for Reading and Writing: Influence of Modeling, Goal Setting, and Self-evaluation. Reading & Writing Quarterly, 19(2), 159-172
- [15] S. Yun, J. Cox & H. P. Sims. (2006). The Forgotten Follower: A Contingency Model of Leadership Followe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1(4), 374-388.
- [16] C. C. Manz & H. P. Sims Jr. (2006). Super-Leadership: Leading Others To Lead Themselves. NewYork: Berkley Books.
- [17] Y. J. Lee & K. S Jung. (2018). The Effects of Student Self-leadership Campus-life Satisfaction Level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1), 391-410. DOI: 10.21509/KJYS.2018.01.25.1.391
- [18] S. Y. Kim, E. K. Kim, B. S. Kim & E. P. Lee. (2016). Influence of Nurses' Self- leadership on Individual and Team Members' Work Role Performa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6(3), 338-348. DOI: 10.4040/jkan.2016.46.3.338
- [19] O. S. Lee. (2020). The Effect of the Problem-Based Learning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cademic Self-Efficacy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Diagnostic Tests and Nurs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5), 279-285.

DOI: 10.14400/JDC.2020.18.5.279

[20] H. S. Kang & Y. Y. Kim. (2017).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5), 617-625.

DOI: 10.5762/KAIS.2017.18.5.617

[21] J. W. Park, C. J. Kim, Y. S. Kim, M. S. Yoo, S. M. Chea, J. A. An & H. R. Yoo. (2012). Impa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General Self-Efficacy, and Leadership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4(3), 223-231.

DOI: 10.3946/kjme.2012.24.3.223

- [22] A. J. Martin & S. A. Jackson. (2008). Brief Approaches to Assessing Task Absorption and Enhanced Subjective Experience: Examining "Short" and "Core" Flow in Diverse Performance Domains. Motivation and Emotion, 32, 141-157. DOI: 10.1007/s11031-008-9094-0
- [23] S. J. Jeong & J. H. Jeong. (2014). The Effects of Unemployed Vocational Trainee's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Training Program Characteristics, Learning Flow, and Career Planning on Employability.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6(4), 61-89.
- [24] M. Sherer, J. Maddux, B. Mercandantem, S. Prentice-Dunnm, B. Jacobs & R. Rogers.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Y. Hong. (1995).Relationship [25] H.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Master's Thesis. Ehwa Womans University, Seoul.
- [26] J. D. Houghton & C. P. Neck. (2002).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 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 672-691.
- [27] Y. K. Sin, M. S. Kim & Y. S. Han. (2009).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RSLQ) korean Korea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association, 6(3), 313-340. DOI: 10.16983/kjsp.2009.6.3.377
- [28] S. J. Kang & C. S. Shim. (2021). Factors of Influencing Empathic ability, Nunchi and Learning Flow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Focusing on Online Clinical practice Students during the COVID-19.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7(3), 405-413. DOI: 10.17703/JCCT.2021.7.3.405
- [29] J. H. Kim & M. K. Park. (2018).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o Learning Flow on in Self-Regulated Learning: Mediating Effect of Metacogni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2) 349–357.

DOI: 10.15207/JKCS.2018.9.2.349

- [30] H. J. Park, E. J. Yoo & H. M. Lee.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Major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Factors Affecting Self-Effectiveness and Social Sup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20(2), 310–322. DOI: 10.5392/JKCA.2020.20.02.310
- [31] S. M. Lim & Y. R. Yeom (2020).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to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and Academic Self-Efficacy in both Online and Offline Lectur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11), 107-116.

DOI: 10.22156/CS4SMB.2020.10.11.107

- [32] S. H. Kim & S. Y. Park. (2014).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3), 1557-1565. DOI: 10.5762/KAIS.2014.15.3.1557
- [33] O. S. Lee.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9), 6036-6043. DOI: 10.5762/KAIS.2015.16.9.6036
- [34] J. Y. Won. (2022).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ademic Self-Efficacy on University Freshmen'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2), 89-104. DOI: 10.22251/jlcci.2022.22.2.89
- [35] G. Y. Lee. (2016). Levels of self leadership among nursing student in metropolitan.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2(6)*, 233–253.

DOI: 10.24159/joec.2016.22.6.233

# 이 윤 희(Yoon-Hee Lee)

# [정회원]



2018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

· 2018년 9월 ~ 현재 : 우송정보대학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여성질환 · E-Mail : yoonhee.lee@wsi.ac.kr

# 박 금 옥(Keum-Ok Park)

# [정회원]

· 2019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

2019년 4월 ~ 현재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만성질환간호, 노인간호,

간호교육

· E-Mail: keumok@wsu.ac.kr